



날상장

2023 SUMMER vol.28

Hot 人

바다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날아온,
대한잠수협회 33년 스쿠버 경력,
곽동수 강사의 잠수 이야기

안전을 부탁 海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부탁 海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오존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해양구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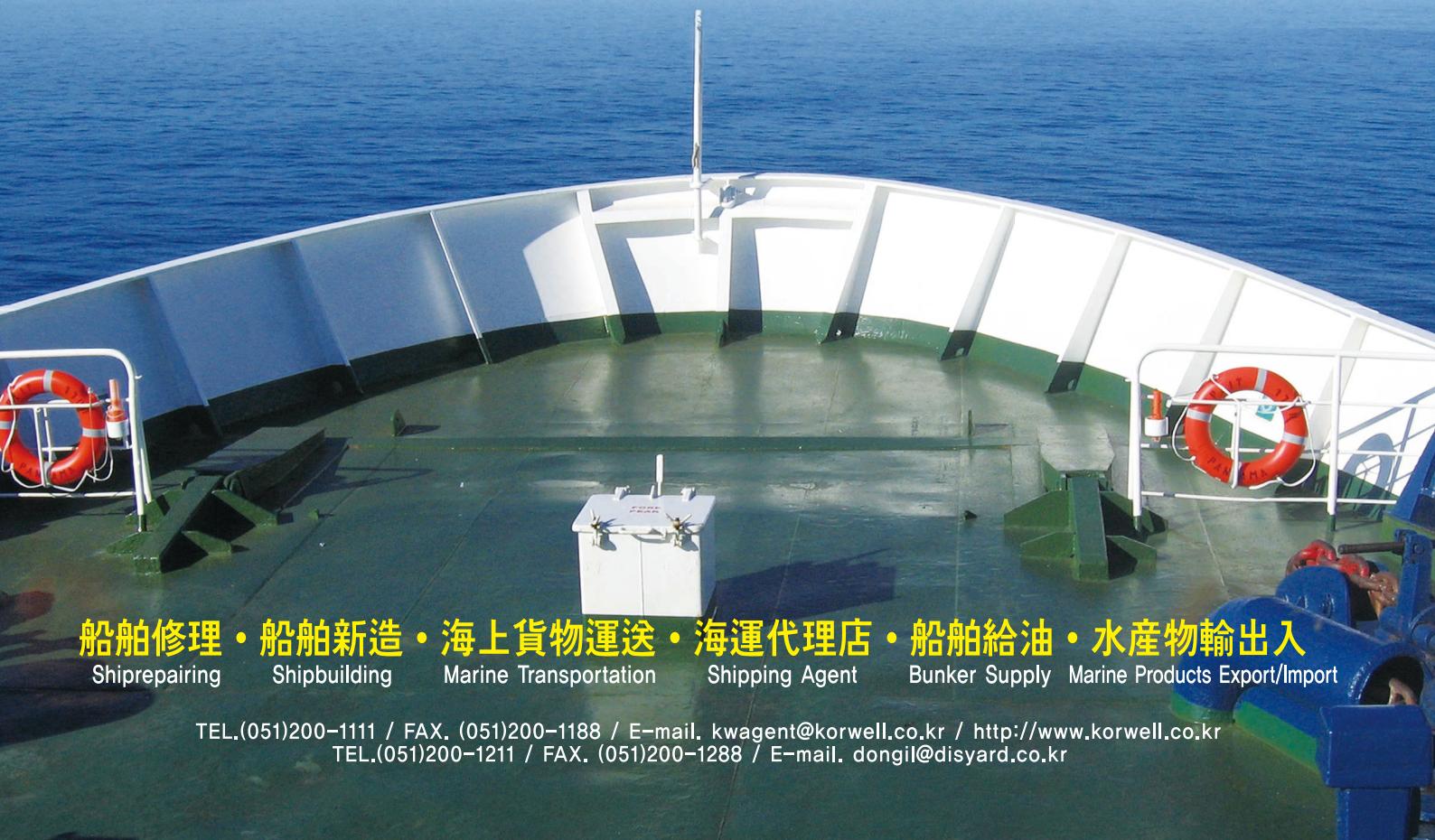


주식회사 코 르 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 코마린 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成泰



船舶修理・船舶新造・海上貨物運送・海運代理店・船舶給油・水産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A KOREA MAGAZINE

2023 7
제28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3년 7월 19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황서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작 「너울 사랑」

해관 최수남(海觀 崔守南)선생의 작품으로 '념실대는 파도를 역동적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바다를 통해 치유 받는 마음'을

CONTENTS

Special Theme

기고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채광철	04
-----	----------------	----

MARSA News

본부 뉴스	1. 해양경찰청-(주)이마트,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식	06
-------	--	----

지부·지역대 뉴스

1. 울산지부, '제12회 울산시 수산인의 날'을 맞아 체험교실 등 운영	07
2. 경기충남북부지부, 국제여객선 복합재난 합동대응 훈련 참관	08
3. 전남남부지부 완도구조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방문객을 위한 안전 활동	09
4. 전북북부지부, 「제8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 성료	10
5.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제28회 바다의 날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	11
6. 인천지부, 안전문화 체험행사 참여	12
7. 강원북부지부 속초구조대, 조도 생태조사 환경정화 활동	13
8. 전남남부지부 장흥구조대, 「제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에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활동 참여	14
9. S-OIL과 함께 민관단 합동 수중 정화 활동	15
10. 전국 구조·구난소식	16

MARSA Story

Hot人	바다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날아온, 대한잠수협회 33년 스쿠버 경력, 곽동수 강사의 잠수 이야기	17
------	--	----

안전을 부탁 海 환경을 부탁 海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오존에 대해 알아볼까요?	20 23
----------------------	--	----------

MARSA Info

해양경찰소식

1.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26
2. 해양경찰,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구축	27
3. 우리 해양영토 불법침범 외국어선 꼼짝 마!	28
4. 해양 플라스틱, 해양경찰청이 잡는다	29
5. 해경청,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추진	30
6. 해양오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31

국내뉴스

1.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해변에서 국민참여 연안정화활동 실시	32
2. 5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 운영	33
3.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시작	34
4.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35
5.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36
6.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활력 높인다	37

MARSA Notice

협회교육안내

1. 2023년 국가자격『수상구조사』 교육	38
2. 2023년 『인구조요원/강사』 교육	39
3. 2023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40
4. 2023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41

협회후원안내

.....	42
-------	----

기고문

최근 5년 민간 구조대 사고 대응률 21%,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역할 갈수록 중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채 광 철

2021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2020년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2019년 목포해양경찰서장

2003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그동안 얹눌려왔던 여가문화생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해양레저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해안은 다도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섬과 복잡한 해안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교통이 복잡하고 해양레저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곳이다.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올해,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는 수상레저사업장 집중점검, 다중이용선박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기동점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펼쳤으며 물놀이 안전수칙과 위기상황 대응요령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연안해역 위험구역 104개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남해안은 섬이 많고 복잡한 해안선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내륙의 1.6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관리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만으로는 사고대응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등과 같은 민간세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와 같은 민간세력에서의 사고 대응률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현지 사정에 능통한 민간인의 조언 및 협조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등 민간세력의 중요성에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역할도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2013년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된 후로 수상에서의 안전 확보 및 구조 지원, 해양환경보전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 전문성을 발전해왔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경찰의 협조자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선진 구조구난체계 구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국 등 해양강국에 비하면 민간세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토대로 민간세력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세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양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습관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루하루 국민들의 습관을 개선해 나가다보면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MARSA NEWS |본부 뉴스|

해양경찰청-(주)이마트,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협약식



▲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해양경찰청과 (주)이마트는 지난 5월 10일,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이날 해양사고 시 민간 구조 참여 활성화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이마트와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이마트는 2021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년간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에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물놀이와 서핑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속초, 부산, 포항에 민간 서프구조대를 출범시켜 그간 총 54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기여했다.

올해 6월에는 국내 주요 서퍼 활동지역인 제주지역에 민간 서프구조대를 발족하며 이로써 동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권 3개소의 민간 서프구조대를 운영하게 된다. 해경은 서프구조대 발대식과 함께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간 해양 구조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구조단체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간 구조경진대회’도 개최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역단체 마일리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해양구조와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우리 협회에 기부하는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이마트 매장 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영상 송출과 포스터 등을 게시하였다.

유충근 수색구조과장은 “광활한 해양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민간 협업을 보다 견고히 하여 구조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해양 안전의식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해경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지부, '제12회 울산광역시 수산인의 날'을 맞아 체험교실 등 운영



▲ 울산지부에서 운영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부스

지난 4월 29일 울산 방어진 위판장에서 제12회 울산 수산인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울산지부에서는 행사를 맞아 체험교실 부스를 마련, CPR.AED 교육과 구조장비를 전시했다. 이날 행사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권명호 국회의원 등 내·외빈 포함 약 1,500여명의 관내 어업인이 참석하였다. 수산인의 날은 시민들에게 수산물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산인을 격려,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행사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고 부대 행사로 제기차기, 육놀이, 투호던지기, 노래 자랑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되었다. 또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도 운영해 참여한 시민들이 울산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CPR 시범중인 대원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경기충남북부지부, 국제여객선 복합재난 합동대응 훈련 참관

지난 5월 23일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복합재난 합동 대응 훈련이 진행되었다.

경기충남북부지부는 중부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소방서와 당진 소방서, 영성대룡해운(주) 등 해양 안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난 5월 23일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선 화재(복합재난) 진압 합동훈련에 함께 했다.

이번 훈련은 한중 국제여객선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복합재난시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여객 운송의 재개로 인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소방경이 소화포를 발사하는 모습

중부지방해양청이 평택해양경찰서로 구조팀 급파를 요청하고 현장을 출동한 당진소방서 소방정과 현장에 대기한 평택 연안 구조정, 이후 소방정 소화포 발사와 국제여객선 긴급 접안, 선내 위험화물 가스 탐지 작업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어졌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재난사고의 대응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훈련에는 배금란 회장, 조범호 교육팀장이 초대되어 참관하였다.



▲ 단체사진



전남남부지부 완도구조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방문객을 위한 안전 활동



▲ 장보고수산물축제 전경(출처:완도군청)

'2023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가 지난 5월 4~7일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축제의 슬로건은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로,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 체험 등 축제를 대표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정 바다와 수산물을 알리기 위함을 나타낸다.

완도구조대는 축제가 진행되는 날, 궂은 날씨 속에서도 더욱 원활하고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에서 활발한 안전 활동을 이어갔다. 시민들의 안전한 동선을 위한 계도 및 행사장 일대를 순찰하며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썼다.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에서는 다른 축제와는 차별성을 둔 부대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는데,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와 완도산 톳을 첨가한 '223m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신선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가 신청을 위한 대기 줄이 생길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또한 '전통 노젓기 대회' 및 '김뜨기 체험'은 물론 '최현우 마술 쇼'와 '청해 트로트 가요제' 등의 공연까지 더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열리는 장보고수산물축제가 축제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수상에서 안전 활동 중인 구조경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전북북부지부, 「제8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 성료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 광장에서 지난 4월 29일 「제8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가 열렸다.

수상 사고 발생시 긴급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 체계마련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보를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 경찰과 해양구조협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수청, 군산소방서 등 15개 기관과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군산해경 및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북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진행하였다.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슬라이드를 이용한 선박 탈출, 구명뗏목, 안전장비 체험, 해양 오염 방제 개발 장비 전시와 수상사고에 대비한 생존법 체험 등 수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단체사진

또한 수상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해양경찰 제복 포토존, 해상특수기동대 복장 착용, 해양환경 사진 전시 등의 행사와 난타공연, 밸리댄스, 풍물놀이,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졌으며, 드론과 고속단정을 이용한 인명구조 시연과 수상 퍼레이드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색적인 즐길거리도 제공되었다. 특히나 올해는 AR 장비를 이용한 해양안전 가상체험도 해볼 수 있어서 더욱 풍성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 행사를 찾은 시민들

이번 행사는 군산시민 및 관광객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교육과 실습 및 체험을 통해 각종 재난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일깨워 주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제28회 바다의 날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



▲ 단체기념 사진

울진군은 지난 5월 24일 후포면 후포항 일원에서 제2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수중·수변 정화 행사를 실시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여 지정된 정부 기념일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울진해양경찰서, 울진군과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등 5개 기관 및 단·업체에서 약 120명이 참여해 폐비닐, 폐트병 등의 연안 쓰레기와 수중폐기물까지 약 3톤을 수거했다. 해양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와 폐어구 등 다양하며 해마다 많은 양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번 수중 수변 정화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항포구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음 세대에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해양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폐어구, 폐트병, 낚시 쓰레기 등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해양 폐기물 수거 중인 잠수사



▲ 수거된 폐기물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인천지부, 안전문화 체험행사 참여

인천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9일, 인천대공원에서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인천시가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나들이 철을 맞아 대대적인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일과 9일 양일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 일원에서 시민 안전문화 체험축제를 비롯해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유관기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마련한 27종의 재난안전 체험부스와 재난안전전시가 벚꽃축제를 맞아 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부스 운영

인천지부는 해양안전체험관을 통해 풀마스크페이스와 안전팔찌 만들기 체험행사와 함께 400여 명의 참여자 대상으로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 안전체험을 실시하였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예방방법을 알리고,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인천의 안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단체사진



▲ 체험교육 진행



강원북부지부 속초구조대, 조도 생태조사·환경정화 활동



▲ 단체기념 사진

속초시는 지난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도 생태조사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해,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 속초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구조대 등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송 전수조사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이 진행되었다.

조도는 속초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무인도로 속초 8경에 속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으나 지난 2008년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해송잎이 백색으로 코팅되는 백화현상으로 인해 식생하고 있던 해송의 상당수가 고사한 바 있다. 2017년부터는 백화현상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로 가마우지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초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50주의 해송을 식재하고 주기적으로 생육상태를 점검하여 조도 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다. 식재한 해송은 매년 50cm~80cm씩 성장하며 좋은 생육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이번 생태조사 결과를 통해 해송의 추가 식재 필요성도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예년 대비 1.5배 늘어난 약 3,000리터의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수거된 폐기 물은 육상으로 운반,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실시된 이번 조사로 조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가마우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 피해가 다시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 생태 조사와 환경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조도의 경관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전남남부지부 장흥구조대, ‘제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활동 참여



▲ 장흥 키조개축제 부스 앞 대원들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안양면 수문항서 제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개최됐다.

2003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째 맞은 키조개축제에서는 갯벌 생태체험, 바지락 캐기, 키조개 까기 및 썰기 대회, 키조개 생태관찰, 만들기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운영되었다. 또한 사진전, 공예품 전시, 풍선아트, 나도 가수다, 팔찌름 대회 등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축제 기간 내내 매일 오후 6시에는 메인 무대에서 초대가수 공연의 ‘열린 무대’가 펼쳐졌다. 이에 장흥구조대는 축제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부스에서 안전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맛있는 키조개 요리도 즐기고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는 등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난 첫 해, 늦은 봄을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득량만 키조개는 5월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차고 맛과 영양이 풍부해진다. 장흥 키조개의 주산지인 안양면 앞 바다는 다양한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개펄과 모래가 섞여 있어 키조개의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키조개는 그 자체로도 담백함이 일품이지만 한우삼합, 전, 탕수육, 회무침, 죽 등의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다. 이러한 명성과 품질이 장흥의 우수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였음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S-OIL과 함께 민·관·단 합동 수중정화 활동



▲ 단체사진 1



▲ 단체사진 2

S-OIL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수중정화활동이 5월 20일 강양항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S-OIL이 주관하고 울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가 주최한 민·관·단 합동 수중정화활동이 지난 5월 20일 울주군 강양항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협회 강웅 본부장과 울산지부 협회장, 울산해경구조대, S-OIL 팀장 등 내·외빈과 잠수사 20명, 강양어촌계 및 강양선주협회와 자원봉사 육상인원 등 약 150여명이 함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연안 발생 해양쓰레기는 2017년 1,150톤, 2022년 3,093톤으로 5년간 168%가 증가했다. 이는 울산 시민은 물론 바다와 함께하는 해양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S-OIL은 활동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크레인 등의 장비 운영에 사용될 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2023년부터 울산해양경찰서와 우리협회 등 울산지역 해양 관련 단체와 함께 울산 연안 해안의 해양 폐기물과 퇴적물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며, 이번 강양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온산항, 방어진항, 주전항 등에서도 총 5회에 걸쳐 계속해서 수중정화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주철 울산해양경찰 서장은 “민관단이 함께하는 울산 연안 정화활동에 울산 해경도 적극 동참하겠으며, 이번 정화활동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S-OIL 오석동 전무는 “울산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으로서 울산 연안의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정화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울산 지역 해양 생태계 유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잠수사들



▲ 수중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전국 구조·구난소식

| 강원북부지부,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앞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6월 23일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앞 갯바위 근처에서 스노쿨링 하던 관광객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너울성 파도로 수중 수색을 할 수 없었고, 드론 구조대 대원들과 육상 수색을 진행하였다. 수색 4시간 만에 해변 얕은 수심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여 구조하였으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실종자를 수색중인 대원들

| 서울지부, 가양대교 투신 시도 고교생 구조

지난 6월 15일 가양대교에서 신병을 비관해 투신을 시도했던 17세 고교생을 16일 오전 5시경 서울지부 김홍석 대원이 구조했다.

김홍석 대원은 조업 도중 스티로폼 부표에 매달려 7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을 구조해 망원 파출소에 신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인계조치를 했다. 심야 한강에 빠진 학생은 투신지점에서 약 1.5km를 떠내려와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고, 김홍석 대원은 어민 쉼터로 쓰이는 바지선으로 옮겨 옷을 갈아입히고 체온유지에 힘썼다.



▲ 서울지부 김홍석 대원

Hot 人

바다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날아온,

대한잠수협회
33년 스쿠버 경력,

곽동수 강사의 잠수 이야기



스쿠버 다이빙(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Diving)이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중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쓰는 스킨스쿠버는 오래된 표현인 스킨 다이빙을 스쿠버 다이빙에 합친 것이다. 스킨 다이빙은 수경과 스노클링을 물고 숨을 참은 후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부르는 용어이며 현재의 프리 다이빙과는 거리가 멀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때 스노클링을 간단하게나마 가르쳐주다보니 오래 전부터 교육해 온 강사들은 여전히 이 표현을 썼다고 한다. 이런 스쿠버 다이빙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고율이 높지 않고, 해양 레포츠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비용은 더 높지만, 수영이나 프리 다이빙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물속까지 탐험할 수 있고, 지속 기간도 더 길다는 것을 매력으로 꼽는다.

대한잠수협회 33년 스쿠버 경력의 곽동수 강사는 그야말로 바다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베테랑 잠수사이다. 청량함이 가득한 제주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인명구조 강사와 생존수영 강사는 물론 행정안전부 긴급대응단 해상팀원과 제주 민간특수구조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구조협회 인명구조 강사로서 제주 해경 인명구조교육을 진행하며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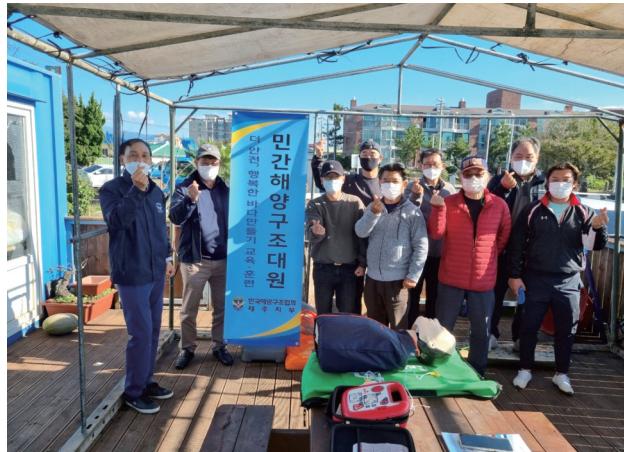
강사로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인명구조강사(제주인명강사 1호)가 되기 위해 강사 교육 테스트 중 잠영 50미터를 할 때였습니다. 45미터를 지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당시 교관이었던 본회 권순길 대리님의 빠른 심폐소생술 실시로 의식을 회복했어요. 강사가 되고 난 후 지금도 현장에서 인명구조 교육 시에 꼭 이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빠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니까요. 저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강사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있어요.’라 답했다.

그가 부산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한지는 벌써 5년이 되었다. 처음부터 제주에서 살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 지내다보니 제주만의 특별한 바다에 반하게 되었고 그 참에 그대로 놀러앉게 된 것. 현재는 제주 공항 인근에서 체험 다이빙 및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는 '제주 바다새 스쿠버'란 솜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는ダイ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바다새'란 이름은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물속 세상을 '바다새'처럼 날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에 지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잠수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는 생각에 단번에 이름을 결정했다고.

"어린 시절,ダイバー들은 한 번의 잠수로 많이 잡고 남들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더 깊게 다이빙 하는 걸 내세우기 좋아했어요. 보조호흡기도 없고 버디 시스템도 없는,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무지한 다이빙을 하다 보니 이러면 즐기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다이빙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수중 레저 활동에 참여한 인구는 연간 12만 명에 이르지만 잘못된 방법의 다이빙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 올바른 다이빙 방법을 지도해주기로 마음먹은 그는 그때부터 강사과정을 밟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생활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바다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수시로 플로빙*을 하며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하고, 매주 바다 수영을 하는 동호회도 운영한다. 바다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그를 보면 흡사 바다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싶다.

*플로빙 : 플로카 업+프리다이빙, '플로카 업'은 스웨덴어로 '줍다'라는 뜻





제주에서ダイビング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 서귀포 문섬과 범섬, 섬섬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그만큼 다이빙하기 좋은 곳이라 했다. 문섬은 제주 서귀포시 삼매봉 아래 외돌개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섬으로 무인도이다. 수중에는 난류가 흘러 사시사철 아열대성 어류들이 서식하며 63종의 희귀 산호들이 자라고 있어 국내 최고 수중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범섬은 삼매봉 아래 외돌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무인도로 섬 주변에는 기복이 심한 암초가 깔려 있어 참돔, 돌돔, 자바리 등이 많다. 서귀포시 보목동 남서쪽 3km 지점의 무인도인 섬섬은 국내 유일 파초일엽 자생지며 돌돔, 뱃에돔, 감성돔 등이 서식하는 곳이다.

수중체험ダイビング을 안전하게 지도하면서 참여한 모든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가장 보람된다는 그는 5년 후, 10년 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강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바다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다 함께 애썼으면 좋겠다”며 “특히 플로깅을 생활화하는 더 많은ダイバ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말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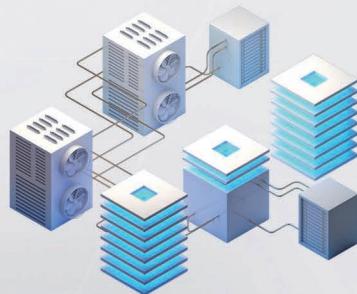
잠깐! About 스쿠버ダイバー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한계수심 약 30m 깊이까지 잠수하여 즐기는 해양 레포츠로 일정 교육만 잘 이수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1953년 미해군의 도움으로 한국 해군에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와 SSU해난구조대가 창설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스쿠버ダイバー 장비와 기술이 소개되었고 1970년대부터 스쿠버 장비들이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보다 안전하게 개량되면서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스쿠버ダイバー를 할 때 수압 증가로 중이가 압착되어 귀에 통증이 오거나 드문 경우 충치치료를 한 사람의 치아에 압력이 증가하거나 공기가 수축되어 치통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ダイビング을 해야 한다. 또한 대동맥 질환, 심부전,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제1형 또는 2형 당뇨병 등이 있거나 공황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의학적 상태를 고려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전을 부탁 海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긴급신고 바로앱

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청각장애인, 범죄로 위협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 등 음성통화가 불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앱 출시 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 및 경북 지역 가족 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모국어가 서툰 다문화 자녀들이 앱을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이주 여성들의 큰 만족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도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적용,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준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공유플랫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민간기업, 연구기관, 국민 누구나 재난안전공유 플랫폼(www.safetydata.go.kr)을 통해 각 기관별로 신청해야했던 자료들을 원스톱 통합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도 개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재난안전데이터공유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The platform is a web-based service (www.safetydata.go.kr) that integrates disaster-related data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t allows users to search for specific data, such as weather, flooding, and forest fires, and provides a single point of access to this information. The platform also includes a feature for users to request data from different agencies.

지금까지 재난안전 데이터는 어떻게 이용했나요?

Three user testimonies are shown:

- A woman says: "I used to have to apply for data individually at each agency, which was very inconvenient."
- A man says: "At the time of application, I could only receive data once, which was not enough for my needs."
- A woman says: "When I applied to private companies, they did not share data well."

재난안전데이터!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①

The diagram shows the transition from a central public sharing platform to a unified data sharing system. It illustrates how four government agencies (Ministry of行政安전부, Ministry of 국토교통부,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al Ministry) provide data to a central "공유 플랫폼" (Sharing Platform), which then provides data to the public through a "원스톱 통합 제공" (One-stop integrated provision) system. A cartoon cat character is shown holding a smartphone and interacting with the platform.

재난안전데이터!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②

The second diagram shows the final state where the public sharing platform has become the central hub. It receives data from the same four government agencies and provides data directly to the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like Kakao and SK Gas. The "민간 주도" (Private主导) section indicates that private companies can now receive data independently. A cartoon cat character is again shown interacting with the platform.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체계 마련

현재 대한민국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 「현장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하였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 지능 기반인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서초구 서원초, 서초초, 영등포구 당중초 인근 보호구역 내)에서 시범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침수·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 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이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하였다.



한편,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의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18일(목)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하였다.

용역을 경유한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

 <p>플랫폼 기반 데이터통합관리</p>	 <p>긴급신고 바로 대국민 서비스</p>	 <p>ICT 기반 인파관리</p>
 <p>AI 기반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p>	 <p>CCTV 기반 스마트 관제</p>	 <p>재난안전산업 육성</p>

모든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또한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 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환경을 부탁 海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오존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구를 지키는 오존층

오존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오존분자는 세 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존(O3)은 무색 또는 청색, 무미, 해초냄새의 자극성질이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산화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 휘발성 유기물(VOCs) 등이 강한 태양광선중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시부터 5시경 많이 발생하고,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 전구물질의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자동차, 화학공정, 석유정제, 도로포장, 도장산업, 인쇄, 세탁소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삼림에서도 많은 양이 자연배출 되고 있다.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과 피해를 주는 오존?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오존의 90%는 지상 약 10~50km 사이에 있는 성층권 내의 오존층에 밀집되어 존재한다. 이 오존층은 태양광선 중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95~99% 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이로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의 오묘한 신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표로부터 10km이내의 대류권에는 나머지 오존 10%가 존재하는데 이는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 적당량이 존재할 때는 살균, 탈취 등의 작용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된다.

하지만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며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포항공대(포스텍) 환경공학부 이형주 교수가 미국 예일대, 하버드대 연구팀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가뭄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가뭄이 지상 오존 농도를 올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피부에 닿음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고,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10년 새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미세 먼지(PM2.5) 노출에 따른 사망보다도 많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공개한 제1차 기후 보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에 따른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 2019년 28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연평균 35.8ppb에서 45ppb로 늘었다고 한다.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은?

지상의 평균 풍속이 3.0m/sec 미만으로 바람이 약할 때, 기온이 높을 때, 일출 후 정오까지 총 일사량이 6.4MJ/m² 이상으로 많을 때, 흐린 날씨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많이 발생한다. 오존은 강한 햇빛의 존재 하에 생성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높은 농도를 보인다. 아침부터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오전에 축적되어 있다가 햇빛을 받아 오존을 생성시켜 오후에 최고농도에 도달하게 된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햇빛이 없어 광화학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오존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한밤중, 이른 새벽 등에는 농도가 제로(0)상태에 가까워 진다.

오존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은?

예보등급(ppm)	좋음(0~0.030)	보통(0.031~0.090)	나쁨(0.091~0.150)	매우 나쁨(0.151 이상)
시민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며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취약군		-	일사량이 높은 14시~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근무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오존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발령기준	해체기준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0.30pp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0.30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0.50pp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0.50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 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감군 및 취약군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오존저감을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존오염저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저감대책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추진, 자동차 및 산업체 등의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국민들의 참여여부가 오존저감의 관건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율참여 유도, 근원적 오존오염 저감을 위해 체계적 오존 대책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실행중이다.

오존저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방안은?

1.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은 서울 60.2%, 부산 46.3%로 도쿄 74%, 런던 83%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시내버스 1대는 승용차 40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도 9톤이나 줄일 수 있다. 또 자가용 이용 시 버스 이용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약 1.3배, VOC는 약 11배가, 전철 이용 시 질소산화물 3배, VOC는 무려 650배 배출되니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해보자.
2. 정기적인 자동차 정비 :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엔진오일, 에어필터, 연료필터, 점화플러그 교환 등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질소산화물 약 3.3%, VOC를 약 6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3. 과적 및 연료공급장치 조작 금지 : 최대적재량보다 30% 과적하는 경우 질소산화물 약 4%, VOC는 약 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연은 약 50%,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은 16.4%가 증가한다. 또 자동차 사용자가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공급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보면 연료공급량 20% 높일 시 출력은 13% 증가, 매연량은 189%나 증가한다고.
4.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료낭비와 대기 오염도를 가중시키며, 승용차의 경우 10분간 공회전시 3.5km를 갈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 자동차 1대가 1일 5분씩 연간 300일 공회전시 총 3,575억 원씩 낭비되며 오염물질도 6,000톤이 추가배출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손실비용이 111억 원에 이르게 된다.
5. 적정한 타이어 공기압 유지 :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 시 연비가 8~10% 증가하여 연료사용량이 감소됨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어든다.
6.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 여름철 3개월 동안 에어컨을 2단으로 사용 시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전국적으로 7천 톤, 연료사용량은 315억 원이 증가한다.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시 사용단수를 낮추어 사용해보자.
7. 차량 운행 횟수의 최소화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보자.
8. 주유는 이름 아침이나 저녁 7시 이후 : 오존이 최고 농도로 올라가는 낮 시간대를 피해 주유할 경우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9. 환경 친화적 운전문화 정착 : 경제속도(60~80km/h)로 정속 주행하고, 연료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급출발, 급가속 및 감속을 줄이자.
10.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 :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 등을 사용하고 도장작업도 스프레이보다는 봇 또는 롤러를 이용해보자.

실시간 오존 농도 등 대기질 정보와 예보 및 경보 발령상황 확인은 여기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lorea.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에어코리아 오존정보 QR



▲ 서울시내버스



▲ 시외버스 내부



출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환경부

» 해양경찰 소식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6월 24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47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주요 추진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500여명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워크숍 종료 후 단체사진

이번 워크숍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사전교육(64h)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성과 및 추진 정책 설명 ▲국내 자격제도의 이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과의 주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현장환경에 적합한 수상구조사 양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4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47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주요 추진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500여명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사전교육(64h)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성과 및 추진 정책 설명 △국내 자격제도의 이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과의 주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현장환경에 적합한 수상구조사 양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 소식

해양경찰,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구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 오후, 경인항 인천터미널(인천 서구 정서진로 소재)에서 「2023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 대회」 시상식과 함께 외국어선의 불법 집단침범 상황을 가정 해·공 입체적 단속훈련이 펼쳐졌다.”고 6월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1·2차 예선을 걸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 있는 전국 5개 지방해양 경찰청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선발된 우수팀(1·2·3팀)의 단정 운용술 시연을 시작으로 3000톤급 대형함을 포함한 함정 6척, 특수 기동정 1척, 고속단정 4척, 헬기 1대가 참가하여 외국 어선의 집단침범 상황에 대해 해·공 입체적 단속 훈련을 전개했다.



▲ 단정경연대회 모습

* 세부 훈련내용 : 무인헬기를 이용한 상황전파 → 함정·회전익 차단 기동 → 소화포 이용 폭력저항 제압→항공 인명구조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해 온 해양경찰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울러,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해경·해수부·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족자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조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의 희생이 없도록 단속 장비 첨단화와 지속적인 전술 개발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는 육군 수도군단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협중앙회장, 해양경찰위원장, 미국·일본 대사관 영사 등 민·관·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관하였다.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우리 해양영토 불법침범 외국어선 꼼짝 마!

**해경청장, 서해 최북단 대청도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 실시하고 지역 어민들과 소통자리 가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6월 9일,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강도 높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대청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해양 경찰청 중점추진 과제(관련 국정과제 :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인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고,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남북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 어선이 밤낮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 청장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이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하여 불법조업 실태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날 훈련은 함정 12척과 항공기 3대가 참여하였으며, 항공기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 어선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불법어선 위치를 경비함정에 통보하자, 외국선박은 단속을 피해 전속으로 도주하고, 추적 끝에 나포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였다. 김 청장은 3008함에 승선하여 훈련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항공기와 직접 교신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치안 현황도 점검하였다. 이어 김 청장은 대청도 어민과 간담회를 갖고,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하였으며, “꽃게 성어기를 맞아 안전 조업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시름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김 청장은 현장점검을 마치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바탕으로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해양경찰청



▲ 불법외국어선 단속 훈련시 지휘하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 불법외국어선 단속 훈련 종료 후 단체사진

» 해양경찰 소식

해양 플라스틱, 해양경찰청이 잡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깨끗한 바다를 가꿔나가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피해를 넘어 항해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을 모아 재활용함으로써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고안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제주도 지역에서 약 2년여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 어선 428척(누적)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약 4톤, 8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생수병을 수거해 재활용에 성공하는 등 프로젝트 시행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보령, 군산, 사천, 속초, 제주 지역 내에서 희망하는 모든 어선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용 마대에 폐 생수병을 모아 반납하면 재활용 기념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바다와 관계된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 시행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은 어업인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홍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폐 생수병의 재활용 과정 관리, 수협은 어선에서 반납한 폐 생수병의 집하 관리를 맡게 된다.

이에 더해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기물 기록부 작성과 폐기물 관리계획서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예방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질 수도 있던 플라스틱을 다시 가져오게 유도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원 순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 한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생순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다가 쓰레기통입니까?

해양 생태계 위협의 주범인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오염된 물질로 변질되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해양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바다를 구해주세요!

Korea Coast Guard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해경청,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4월 19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삭제 수산물을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 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파악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 13)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 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기업화·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협조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라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 우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해양오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신고 후 해양경찰의 조사 활동을 통해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는 최근 5년간 7,630건으로 연평균 1,526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279건에 대해 3,5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해양경찰에서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 및 행위자 적발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양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매년 오염 신고도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해양경찰의 유지문 분석 기법 등과 같이 해양오염 신고 시 오염원 인자를 적발하기 위한 해양오염 조사·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과거에는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 하던 것을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하고, 추후 해양경찰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위자가 적발된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혜택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양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신고 전화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관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 색깔 등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해양경찰청



● 국내 뉴스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해변에서 국민 참여 연안정화활동 실시

**5월 13일부터 매월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
민간 해양정화단체 및 가수 '션', 방송인 '타일러'등도 동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5월 13일(토)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해변에서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알줍캠페인은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알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거나 뛰는 '줍깅(줍다+조깅)'을 실천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연안정화활동이다. 장갑, 집게 등 정화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현장에서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안전지침 및 연안정화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해안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 어업 폐기물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3일(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국 주요 해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바다가꾸기 플랫폼 누리집 (www.caresea.or.kr)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캠페인에는 해양 정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등 민간 해양 정화 단체도 함께하며, 지난해 홍보 대사(Ambassador)였던 가수 '션'과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Tyler Rasch)'도 함께할 예정이다.

* 전국 해양 정화 단체 협력 네트워크로 디프다제주, 레디,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 등 국내 17개 단체가 연합해 활동 중 (badanetwork.campaignus.me)

캠페인이 진행되는 일부 해변에서는 이벤트 트럭 '아이스크림(I♥SEACREAM)'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트럭에 방문하면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하고, 캠페인 홍보 영상, 새활용 제품 전시, 해변 미세플라스틱 채집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알줍캠페인 누리 소통망(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해변 어디에서든 개별적으로 해변 연안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 매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새활용 제품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알줍캠페인 #해양폐기물 #연안정화 #바다가꾸기

류선형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만큼, 알줍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5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 운영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5월 4일(목)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종사자 외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여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더욱 철저하게 수산물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방사능 검사 메일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4월 24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청이 많은 품목 10개를 매주 검사하고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누리집〉

-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www.nfq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www.mfds.go.kr
-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누리집: seafoodsafety.kr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시작

내년 5월 31일까지 69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일(수)부터 2023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 출시된 이후로 최근까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으로 사전 확인 필요)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권 외에 겨울철(2023.11.1.~2024.2.28.)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을 발행하여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바다로’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권하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객 서비스와 여객선 안전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제 21회 국정현안관계장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논의

2024년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순 발생량 네거티브' 전환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4월 20일(목)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021. 5.)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수거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여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둘째,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을 통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해군-해경 협동 수거활동을 통해 테트라포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전국 주요 어항 안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을 확충하고, 권역별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 거점이 될 중간 집하장도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분리배출 체계를 확산시키고 올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력하여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은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을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박 6일 출장

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으며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5.26(금) 일정으로 파견하였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 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핵증제거설비*(이하 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화학 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후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 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설비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활력 높인다

국제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개선과제 발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항만/배후단지 분야, 입항/출항 분야, 선적/하역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었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며,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2023. 3. 시행),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 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평택 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하여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 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협회교육안내

2023년 국가자격『수상구조사』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3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정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 주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간신기간 도래자와 자격정지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2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육비 : 사전교육 : 금500,000원 ※수영장입장료 포함
보수교육 : 금70,000원 ※수영장입장료 미포함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사전교육(64시간) 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s.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3년『인명구조요원/강사』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3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층명사진1매
- 교 육 비 : 요원 25만원 / 강사 3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3년『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3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만 18세 이상
 - 2급 - 재난 3급 이수자
 -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5만원 / 2급 15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3년『해양안전지도사』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3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만 18세 이상
 -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5만원, 2급 1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 ·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3년『생존수영지도사』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2023년 교육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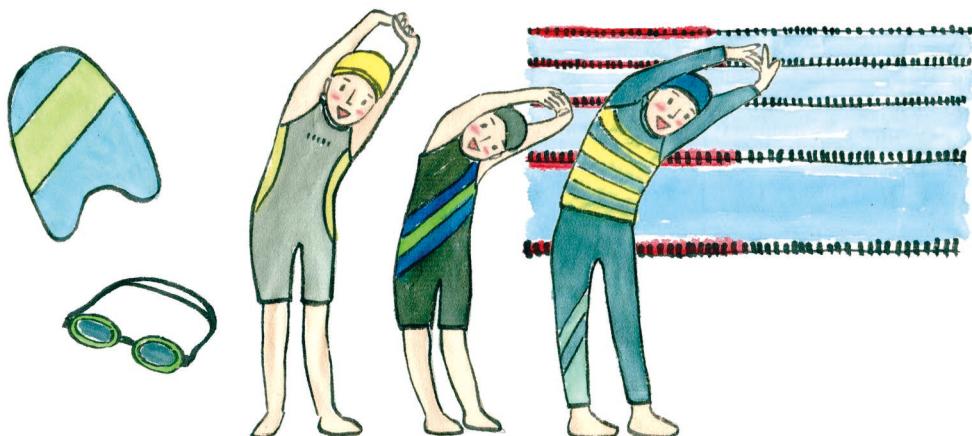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20만원 (C/O 타단체 자격소유자 1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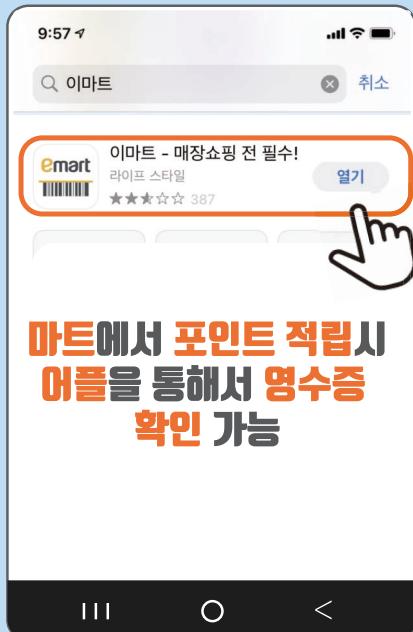


이마트 마일리지 활용백서

쇼핑한 금액의 0.5%를 이마트에서 적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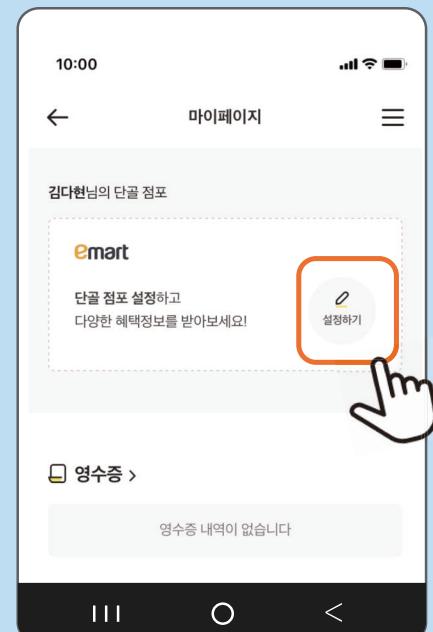


적립된 기금은 바다 안전을 지키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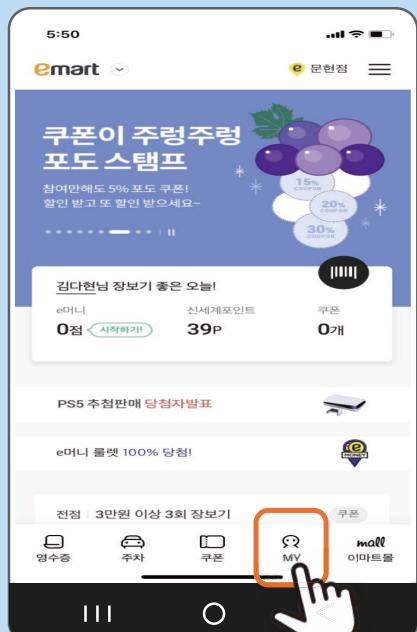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시
어플을 통해서 영수증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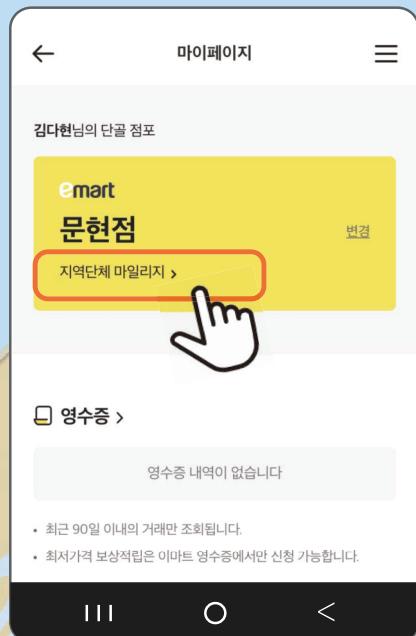
1 이마트 어플 설치



2 회원가입 후 단골점포 등록



3 앱 화면 하단 my 클릭



4 지역단체마일리지 클릭



5 한국해양구조협회 검색

★ 즐겨찾기 설정 후 클릭하기



6 적립하기 클릭 (개별포인트 적립과 별도로 기부됩니다)

어플이 없는 경우 종이영수증을 가지고 '고객만족센터' 방문

(주)장례를 돋는 사람들
힘든 순간 가족의 맘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갑작스레 닥친 장례식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장례를 돋는 사람들 후불240 상품

인력

- 장례지도사 1명*3일 근무(장례절차 진행)
- 입관장례사 2명 2일차 입관식 진행 및 궁중대례
- 행접객도우미 4명 8시간 (8시간 이상 추가요금 발생)

입관용품

- 수의:면수의 100%/기계직
- 목관:오동나무 1.0치
- 유골함:화장시 오동나무유골함 제공
- 규격품 제공

차량

- 장의버스/리무진 중 택1(200Km 제공)
- 엠블런스:관내 무료

상복

- 현대식-남자:직계제공
- 현대식-여자:직계제공

서비스

- 입관꽃장식:제공
- 현화:30송이
- 빈소용품:규격품 제공



사전상담혜택:장례식장 빈소 사용료:무료~50% 할인(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음) *전국 행사 가능*
수의 준비비 (꽃관보, 도우미 1명, 10만원 현금 지원 중 택1)
별도금액:장례식장 사용료, 음식값, 재단꽃
차량기본 200Km 제공 (1Km 추가시 1,800원 추가)

(주)장례를 돋는 사람들



임종시전화

1522-8099



도우미



장례지도사(3일)



리무진



수의



상복